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미리내 김대건 신부 묘소의 과거와 현재 ②

저번 호에 이어 김대건 신부가 묻혀 있었고 또 유해가 발굴된 미리내 묘소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2021년 4월 15일 ‘안성 미리내성지 등록문화재 등재를 위한 전문가 콜로키엄’에서 발표한 글(김대건 신부 묘소와 김대건기념성당, 미리내 성요셉성당의 역사적 의미)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대건 신부 묘소의 재정비 (1928년) - 현재와 다른 모습

김대건 신부 묘소는 페레올 주교의 묘소와 함께 1928년 7월 ‘복자(김대건 신부) 기념경당’의 건립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정비·단장되었습니다. 이때 정비된 김대건 신부 묘소는 현재와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사진] 1960년 당시 김대건 신부 묘소
[『가톨릭청년』 14권 11호(1960년 11월), 화보]



[사진] 1965년 당시 김대건 신부 묘소
[『강도영 신부 서한집』, 584쪽]

시멘트로 조성한 관 모양의 구조물과 십자가가 봉분을 대신했으며, 십자가에는 김대건 신부의 묘소임을 알리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전 사진들을 보면 화환에 가려져 있거나 근접 촬영이 아니라서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진] 1970년, 순례 신자들과 김 신부 유해[아래턱뼈]
[『강도영 신부 서한집』, 606쪽]



[사진] 1976년, 김대건 신부 묘소와 노기남 주교
[『강도영 신부 서한집』, 601쪽]

위의 여러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세로로 쓰여진 ‘金 안드레아 神父 무덤 자리’라는 글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1960년 사진에는 맨위에 가로로 ‘福者’가 쓰여져 있는데, 뒷 시기의 사진에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 글자를 새길 때는 ‘福者 金 안드레아 神父 무덤 자리’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연적인 마모 현상인지 인공적으로 지우거나 매끈 것인지 모르지만 ‘福者’와 ‘자리’ 글자가 사라져 1976년 사진에는 ‘金 안드레아 神父 무덤’ 글자만 확인됩니다.

1960년에 ‘기념경당’이 교황 요한 23세(Johannes XXIII)에 의해 ‘순례성소’[Sanctuary, 현재 용어로는 성지(聖址)]로 지정되고, 김대건 신부의 아래턱뼈가 ‘기념경당’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념경당’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김 신부 묘소에도 손을 댄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대건 신부, 복자에서 성인이 되다 (1984년) - 현재의 묘소 모습

김대건 신부 묘소가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1976년 미리내본당이 부활하고 미리내천주성삼성 직수도회가 미리내성지를 담당하게 된 이후입니다. 1978년 8월 묘소 및 기념성당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김 신부 묘소뿐 아니라 페레올 주교, 강도영 신부, 최문식 신부 묘소가 모두 석관 구조물(강화 애석)으로 단장되었습니다.

1984년 5월 6일 김대건 신부가 시성되면서 관련 내용이 묘소의 석관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즉 김대건 신부의 간략한 이력(출생, 사제서품, 순교, 시복, 시성 일자)이 석관 위에 부착된 책자 모양의 검은 돌판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89년 4월 29일에 페레올 주교의 석관 뚜껑이 김대건 신부의 뚜껑과 같은 것으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1984년 시성식에 앞서 1983년에 김대건 신부의 정강이뼈가 로마교황청 시성위원회에 조사차 보내

졌다가 한국에 되돌아와 미리내로 보내졌습니다. 현재 김 신부의 아래턱뼈는 미리내 성요셉성당에, 정강이뼈는 1991년 미리내성지에 건립된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기념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2021년 현재, 기념성당과 묘소들



[사진] 현재 김대건 신부[右]와 강도영 신부 묘소

1846년 이래 55년간 미리내의 봉분 묘소 안에 안장되어 있던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1901년 발굴·이장됨으로써 그 묘소는 무덤 터로 바뀌었습니다. 1928년 ‘기념경당’ 건립을 계기로 무덤 자리에 시멘트 구조물의 묘소가 들어섰다가 현재의 석관 구조의 묘소로 대체되었습니다. 김 신부의 유해도 그 일부가 1925년부터 1983년까지 미리내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지만, 최초의 한국인 사제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가 안장되어 있던 묘소는 ‘거룩한 곳’으로 인식되어 사제들과 신자들의 순례를 받았습니다.

사제들과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 묘소를 순례함으로써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순교자들에 대한 현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고, 김대건 신부 묘소를 중심으로 순교자들의 후손들이 정착한 미리내 지역이 본당으로서, 성지로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묘소는 미리내 신앙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미리내성지’의 뿌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모방 신부가 조선 국경에서 쓴 서한 2통②

첫 번째 서한의 원문 판독과 번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지난 10월호에서는 모방 신부가 1836년 1월 12일 조선-중국의 국경 변문(邊門, ‘책문’)에서 조선에 입국하기 직전에 쓴 서한 2통 중 프랑스어 서한의 내용과 이 서한의 기존 번역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서한의 최초 번역은 모방 신부의 조선 입국 100주년을 기념하며 1936년 1월에 피송 신부가 『가톨릭 청년』에 실은 번역입니다. 이 잡지는 일반 신자들을 위한 잡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어 원문은 함께 실려있지 않았고, 신뢰할 만한 원문 판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이 서한의 프랑스어 원문 판독은 2003년이 되어서야 고(故) 지정환(디디에) 신부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모방 신부가 조선의 입구에서 쓴 프랑스어 서한이 20세기에 와서 처음 번역되었고 첫 편집본(edition)은 21세기에 나온 것입니다. 지정환 신부는 전북 임실에서 치즈 농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바로 그분입니다. 모방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집본 『모방 신부 서한 1832-1839(Monsieur Maubant Lettres de 1832 à 1839)』은 파리외방전교회 고문서고의 ‘모방 신부 문서’(AMEP V.1260)의 모든 프랑스어 서한을 판독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흑백 복사본을 바탕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판독이 불확실한 자리가 매우 많았고, 라틴어 서한들은 판독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문에서 지정환 신부는 판독 작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복사본은 상태가 몹시 열악해서 읽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내 작업은 종종 독해가 아니라 해독이 되곤 했다. 모방 신부님께서서는 본인의 서한을 해독할 때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는다.”

첫 번째 편집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두 번째 편집본은 2006년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어 판독 오류 교정에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제 고(故) 태요한(올리비에) 신부가 참여했으며 고(故) 최승룡(테오필로) 신부가 라틴어 서한들을 판독하였습니다. 지정환·최승룡 편집본의 가장 큰 특징은 손으로 쓴 육필본에 있는 모든 글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모방 신부가 잘못 쓴 악센트는 고치되, 약자, 지금은 쓰지 않는 옛 단어, 철자오류 등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판독하였고 일러두기에 현대식 표기를 병기한 목록을 실었기 때문에, 원문 대조를 해야 하는 작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에는 파리외방전교회로부터 ‘모방 신부 문서’(AMEP V.1260)의 원문 파일을 입수하여 지정환·최승룡 편집본의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새로운 편집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조역주서가 완성되면 신자분들께서는 최초로 판독과 번역을 온전하게 갖춘 모방 신부의 서한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III’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1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